

‘악촌오거리 살인사건’ 무죄 선고

16년 만에 누명 벗어... 강압수사로 인한 잘못된 사례로 남아

악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 됐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가 청구한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끊임없이 진범논란을 일으킨 '익산 악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결국 검경의 불합리한 강압 수사로 인한 잘못된 사례로 남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10여

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속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고생 많았다"라는 마지막 말을 전한 순간 재판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재판장을 나온 최씨는 답답한 표정으로 "출소하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붙은 살인 꼬리표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를 맡아준 박 변호사님과 진범을 찾아낸 황 반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살인범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게 맞았다"면서 "오늘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의 과오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이 사건으로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15살의 소년이 10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당한 지옥과 같은 고통은

자세히 언급조차 안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악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후 2시 7분경 익산 악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흥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에 그쳤던 최씨는 유씨와 실랑이 끝에 흥기로 찔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 했다. 최씨는 2013년 4월 수사 중 체포, 감금, 자백유도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을 이유로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던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흥기로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그가 입은 옷에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이 3년가량 지난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회에서 이번 사건이 언급되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뭐라 할 말이 없는 너무 큰 실수였다"며 "삼례 3인조 할머니 살인사건과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낸 우리 경찰의 큰 실수다. 잘못된 조사로 큰 피해를 받은 최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죄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7일 익산 악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김모(38)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동동 악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하천 수질개선사업 ‘우수’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전주시가 하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2016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우수관리청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 10억원이상 지원받는 지자체 대상으로 성과계획, 사업관리, 성과목표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는 상으로, 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문에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 3개년 동안 금강수계 수질개선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오·우수분리사업 등 사업비 66억원을 지원받아 총인(T·P)시설 및 초기 우수·합류식하수도 월류

수(CSOs)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전주천 하류 수질은 사업 이전보다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0%,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3% 각각 개선됐다. 또, 녹조류 증식 등 하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총인(T·P)도 0.172PPM으로 59% 개선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하루 평균 36만톤을 방류해 만경강 전체 유입 유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하수처리장이 만경강 수질을 50%~75%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그동안 어려운 실정임에도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노력으로 금강유역 수질개선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증설 및 오·우수 분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우수 지자체’

전주시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정부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1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의료급여 사업 기관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절감 실적, 의료급여 홍보실적,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실적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에 거주하는 의료

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는 총 2만6255명으로, 상시 7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간호사)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상담·관리하고 있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관리 및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건전한 의료비 사용을 유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급여 진료비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우리도 할말 있어요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오전 전주지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피켓을 들고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전주·안동·경산·창원시, 재난관리지원 ‘맞손’

영호남 지자체간 우호관계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 확보

전주시가 영남권 3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전주시는 경북 안동시·경산시, 경남 창원시와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상황이 다칠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을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주시에 폭설이 내렸을 당시 한걸음에 달려와 경남·북 지자체의 재설작업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영·호남 지자체간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시·경산시, 경남 창원시와 평소 상호간에 지원 가능한 장비 및 인력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과 태풍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타 지자체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지난 겨울 재설작업 때 재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해 이번 협약을 성사시켰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 수험생 대상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개시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해방감으로 인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은 수능시험을 마친 수능생 다수가 모인 윤집지역 19개소를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 시민단체 387명이 동참해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작업을 전개했다.

이들은 이번 선도보호활동을 23일까지 연장해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대출사기 콜센터 조직 일당 검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노려 대출사기를 벌인 파렴치한 콜센터 조직이 검거됐다.

1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억 4,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콜센터 팀장 송모씨(27, 남) 등 일당 5명을 지난 14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자선용자 박모씨(62, 남) 등 14명에게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및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선용자도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며 허위 홍보로 펼쳐

고, 이렇게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상담원들이 카드번호를 확보한 후 전자제품 상가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행했다.

/김민근 기자

주민 전자제품 품친 경비원 입건

경비원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네이웃의 전자제품을 절취하는 황당한일이 벌어졌다.

17일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위해 번화기를 때어 놓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벽걸이 TV 1대와 인터넷 1대를 훔친 경비원 박모씨(66, 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 세상을 바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요금 결제
-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